



JAO

상큼한 향의 올오버 보디 오일 펜셀베이니아에서 그 역사를 시작한 뷰티 브랜드 '자오(Jao)'는 허브 추출물을 기본으로 한 핸드 밤, 보디 밤, 립밤 등을 선보인다. 그 중에서도 보디밤 아니라 손이나 모발 등 건조한 부위 어디에나 사용할 수 있는 독특한 크림 제형의 보디 오일이 가장 큰 인기. 물감을 짜듯이 손에 짜서 체온에 녹여 사용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오 특유의 상큼한 레몬 민트 향이 퍼져 향만으로도 온몸 구석구석 상쾌하게 만들어 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올해 초부터 스티브 알렌, 아크 네슈 등 브루클린 곳곳의 편집 매장에 소개되며 남녀 불문하고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평소 몸에 털이 많아 오일을 바르기가 꺼리던 남성들도 연고처럼 애용할 정도라고. 유럽 제품인가 하는 착각을 일으키는 아방가르드한 타이포그래피와 패키지 또한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WEBSITE <http://jaold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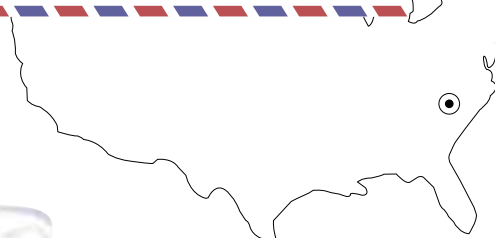
SERGE NORMANT

톱 헤어 아티스트가 만든 헤어 제품 지젤 변천, 사라 제시카 파커, 리즈 위더스푼 등 인기 할리우드 배우의 헤어 스타일링을 담당해온 헤어 스타일리스트 세르주 노르망(Serge Normant)이 자신의 헤어 살롱을 뉴욕에 두 곳이나 오픈한 데 이어 올해는 제품까지 론칭했다. 그의 헤어 제품 라인의 주성분은 모발에 영양을 듬뿍 채워주는 코코넛과 호호바 오일. 이 두 성분 이외에 화학 성분은 거의 들어 있지 않아 모발에 닿는 순간 착 감기며 흡수되어 풍부한 영양을 느낄 수 있다. 소비자들의 반응이 가장 좋은 제품은 '볼류마이저'. 누구라도 손쉽게 모발의 자연스러운 볼륨과 텍스처를 살릴 수 있어 숨을 찾는 셀러브리티뿐 아니라 뷰티 블로거 사이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WEBSITE www.sergenormant.com



beauty spots
NEW YORK



ONE LOVE ORGANICS

최소한의 재료만을 사용하라! 최근 뉴요커 사이에서 핫한 브랜드로 떠오르는 뷰티 브랜드 '원 러브 오가닉스(One Love Organics)'는 모든 군더더기를 없앤다는 의미의 'avoid any stuffs'를 컨셉으로 최소한의 재료만으로 만든 스킨케어 브랜드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층까지 연령과 성별을 불문하고 모두 믿고 쓸 수 있는 제품으로 폭넓은 소비자층을 확보하고 있다. 순한 느낌에 걸맞은 군더더기 없는 패키지 또한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브루클린 곳곳의 편집 매장에서는 샘플 사이즈로 구성된 기획 세트도 판매하는데, 새로운 브랜드의 제품을 테스트하기를 즐기는 20대 여성들이 선물용으로 애용한다고 한다. writer 김아란(뉴욕 통신원) editor 심혜진

WEBSITE <http://oneloveorganics.com>



OCC(OBSESSIVE COMPULSIVE COSMETICS)

눈부신 발색의 립 틴트 뉴욕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데이비드 클래스펠드(David Klasfeld)가 만든 브랜드 'OCC'는 인체에 무해한 파라벤 프리 재료로 만든 메이크업 제품을 선보인다. 10년 전 두 가지 색의 립밤만으로 시작했지만 올해부터 대대적인 신제품을 출시하며 뉴요커들에게 핫한 브랜드로 떠오르고 있다. 그중 가장 소문난 제품은 틴트 타입의 립 컬러인 '립 타 타(Lip Tar Tar)'. 눈이 부실 정도로 선명한 발색력으로 무장한 물감 타입의 이 제품은 최근 전 세포라 매장은 물론이고, 온라인 물에서도 대대적으로 인기를 끄는 중이다. 부담 없는 가격과 브러시가 함께 구성된 실용적인 패키지 또한 매력 포인트. 이 제품과 더불어 아이 블러셔 피그먼트도 최근 블로거들에게 호평받고 있다.

WEBSITE www.occmakeup.com



GREEN & SPRING

영국 전원에서 즐기는 시사이드 스파 케이트 모스가 결혼식을 올린 장소로도 유명한 옛 전원 풍경이 그대로 남아 있는 영국 중남부의 마을 코츠월스(Cotswolds). 이곳에 위치한 럭셔리 호텔 '코울리 매너 하우스(Cowley Manor House)'는 스타일리시하고 모던한 공간과 더불어 이미 여러 차례 수상한 '시사이드(C-Side)' 스파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 스파에서는 이 호텔 그룹에서 출시한 브랜드로, 깊은 숲 속에 위치한 코울리 매너 하우스 주변에서 채취한 자연 재료로 만든 '그린 앤 스프링(Green & Spring)'의 제품을 사용한다. 최근에는 그린 앤 스프링에서 여름내 지친 피부를 회복시켜줄 '리페어 앤 리스토어(Repair and Restore)' 보디라인을 출시함과 동시에 '리페어 앤 리스토어' 트리트먼트를 선보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WEBSITE www.cowleymanor.com / www.greenandspring.com



SARAH CHAPMAN SKINESIS

런던 최고 에스테티션의 화장품 2008년, 스킨케어 전문가로서 쌓은 경험과 과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럭셔리한 런던 첼시 지역에 자신의 이름을 건 브랜드 '사라 챔펀 스킨네시스(Sarah Chapman Skinesis)'를 론칭한 사라 챔펀. 이후 지금까지 그녀는 유럽의 여왕과 공주들, 셀러브리티들에게 큰 사랑을 받으며 최고의 스킨케어 전문가로 자리매김해왔다. 그런 그녀가 최근 오랜 연구 끝에 완성한 '스텝 셀 콜라겐 액티브이터'를 출시하며 다시금 화제에 오르고 있다. 피부 노화를 개선해 8주간 집중적으로 사용하면 젊은 피부를 되찾아주는 제품으로, 이 제품을 사용해본 이들 사이에 소문이 나며 런던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WEBSITE www.sarachapman.net

HEAVEN BY DEBORAH MITCHELL

왕세손비 피부 관리의 비밀 지난 7월 전 세계의 눈길을 미래 영국의 왕이 될 새로운 생명에게 모아졌고, 영국의 여성들은 출산 직후라고는 믿을 수 없는 케이트 미들턴 왕세손비의 눈부신 미모에 사로잡혔다. 아름다움의 비밀은 다름 아닌 벌의 독점 성분을 첨가한 '비 베놈 마스크(Bee Venom Mask)', 왕실의 미를 책임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페이스리스트 데보라 미첼의 뷰티 브랜드 '해븐(Heaven)'이 내놓은 이 제품은 피부를 부드럽게 가꾸고 치료 효능이 있는 마누카 꿀과 피부 리프팅에 탁월한 비 베놈, 시아버터, 로즈와 라벤더 오일 등의 천연 재료를 사용해 즉각 안티에이징 효과를 준다. 이 제품은 최근 영국 뷰티 업계의 머스트 해브 아이템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WEBSITE www.heavenskincare.com



beauty spots
LONDON



GUNJEOR

빈티지 감성의 천연 브랜드 소녀 시절부터 핸드메이드 비누를 모으던 '건제와(Gunjeoir)'의 창립자 소피아 패넌 호웰(Sophia Fannon-Howell)은 카리브 해 지역을 여행하던 중 부티크 호텔에 놓인 천연 향의 비누에서 브랜드의 영감을 얻었다. 이후 핸드크래프트 비누에 대해 연구하던 중 에센셜 오일의 이상적인 혼합과 치료 기능에 매혹되어 오직 자연의 재료만 사용한 뷰티 제품을 만들었고, 그것이 럭셔리 뷰티 브랜드 '건제와'의 시작이었다. 건조하거나 민감한 피부에 효과적인 것은 물론이고, 습진성 피부의 치료까지 가능한 건제와의 제품들은 그 패키지 또한 독특하다. 1920년대 글래머러스한 테이블웨어를 연상시키는 아르누보, 아르데코 스타일의 유리병은 여성들의 로맨티시즘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것. 특히 브랜드의 베스트셀러인 '네롤리 페이스 일릭시어(Neroli Face Elixir)'는 네롤리 오일, 라벤더, 다마스쿠스 로즈 오일을 함유해 피부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뿐 아니라 숙면을 유도하는 편안한 향으로 많은 여성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writer Rei Moon(런던 통신원) editor 심혜진

WEBSITE www.gunjeoir.com





HAMMAM DELLA ROSA

밀라노의 터키 사우나 '하맘 델라 로사(Hammam della Rosa)'는 밀라노 최초의 카페가 있는 스파로,

고대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공중목욕탕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컨셉트에 걸맞게

이국적인 분위기가 매력적인 이곳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을 위한 전용 공간이 따로 있을 정도로 남성 고객들로 붐비고 있으며, 최근에는 커플 전용 마사지도 추가됐다. 아랍식 다리가 마련된 휴식 공간과 월풀, 스팀 룸 등으로 구성되어, 독특한 경험을 하며 일상의 피로를 풀기 위해 찾는 이들이 많다고. 이곳에서는 장미수, 샤워 젤, 스크럽, 헤어 케어 제품 등 폭넓은 라인을 갖춘 자체 브랜드 또한 보유하고 있다. 그중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은 핸드메이드의 투박함을 그대로 살린 '알레포 비누'. 식물 성분이나 주는 비누 이상의 스킨케어 효과로 현지인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WEBSITE www.hammamdellarosa.com



DR. PAOLO VRANJES

공간에 향을 입히다 고급 원단상인 할아버지를 따라 세계를 돌아다녔던 창립자 파올로 브라니에스(Paolo Vranjes) 박사는 세계 각국의 숙소에서 각기 다른 느낌의 향이 나는 것을 경험하고, 그만의 향을 만들기 위해 결심해 자신의 브랜드를 론칭한다. 이것이 묘한 매력의 향을 지닌 디퓨저를 선보이는 브랜드 '닥터 파올로 브라니에스(Dr. Paolo Vranjes)'의 시작이었다. 일반적으로 브랜드에 제품을 문의하면 베스트셀러나 신제품을 추천하는데, 이곳에서는 고객의 환경에 대한 질문부터 던진다. 각 공간과 조화를 이룰 때 더욱 이상적인 향을 발산하는 이곳의 모든 제품은 공간의 향으로 감성적인 부분까지 채우기에 손색없다. 아직 국내에서는 접할 수 없지만 온라인을 통해 이탈리아에서 직배송이 가능하니, 향기를 좋아하는 이들이라면 그들의 홈페이지에 한번 둘러보자.

WEBSITE <http://shop.drvrnjes.it>

QC TERME MILANO

도심 속 전원 스파 까다로운 품질 관리와 서비스로 알려진 'QC 테르메 밀라노(QC Terme Milano)'는 각박한 밀라노의 도심에서 마치 유럽 시골에서 즐기는 듯한 로맨틱한 주말을 보낼 수 있는 곳이다. 수영복을 입고 남녀가 함께 즐기는 노천 온천과 물과 관련된 다양한 실내 트리트먼트 프로그램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 힐링을 위한 데이트 장소로도 손색없다. 특히 32유로 정도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즐길 수 있는 '파우사 테르메(Pausa Terme)'라는 서비스는 스파와 웰빙 음식 등을 함께 즐길 수 있어 인기가 좋다. 대형 뷔페, 간단한 칵테일과 함께 즐기는 해피 아워와 더불어 온천욕까지 할 수 있는 '아페르티 테르메(Aperti Terme)' 역시 밀라노의 젊은이들이 애용하는 서비스다.

WEBSITE www.termemilano.com



OLFATTORIO BAR E PERFUME

전 세계 희귀 향수를 만나는 퍼퓸 바 개인의 성향과 라이프스타일에 꼭 맞는 향수를 제안하는 퍼퓸 바 '올파토리오 바르 에 페르페메(Olfattorio Bar e Perfume)'는 향수를 하나의 예술로 생각하는 창립자 조반니 가이다노(Giovanni Gaidano)에 의해 그 역사가 시작됐다.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며 아직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최고의 향수만을 골라 자신의 퍼퓸 바를 찾은 고객에게 제안한다. 이곳에서는 일반적인 중이가 아닌, 향수의 향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특허받은 컵으로 시향을 하는데, 시향한 뒤에는 직원들이 그 향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향수의 이름, 제조사 등을 일일이 적어준다. 현재 이탈리아 전역에 총 8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밀라노의 가장 핫한 편집 매장인 엑셀시모르에 위치하고 있다. writer 주규웅 (밀라노 통신원) editor 심혜진

WEBSITE www.olfattorio.it

